

21세기의 아버지 노릇

- 아버지 양육참여의 변화 -

이 주 리(중앙대학교 부교수)

한국 사회는 지난 세기 동안 세계에서 가장 급변한 사회변동을 경험한 나라중의 하나이다. 즉, 일제의 식민지배, 한국전쟁 등의 사회혼란과 1960년대 이후의 급격한 산업화와 최근에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와같은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유교적 가족규범은 도구적 가족주의, 정서적 가족주의 등의 가족이념 등으로 보완되어 왔으며 이러한 다양한 가족이념들에 대하여 가족원들은 세대, 연령, 성별의 차이에 따라 노출과 수용의 정도가 다르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급격한 사회변동과 가족규범들의 혼재 하에서 21세기의 아버지 노릇에 대한 논의는 매우 의미있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유교적 가족규범과 1960년대의 경제성장제일주의의 산업화를 통하여 오랫동안 가족내 아버지는 가족의 부양자이고 어머니는 자녀양육의 주된 책임자로 열할 분리하는 가치관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가족구조의 변화, 자녀수의 감소, 여성의 취업증가, 남녀평등주의 사상의 대두로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대두되었다.

국내의 여러 연구들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아동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입증하였다. 연구들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개념을 Lamb, Pleck, Charvon와 Levin이 정의한 아버지와 자녀간의 상호작용, 자녀와 한 공간에 존재할 수 있는 접근성과 양육에 대한 책임감의 세요인의 구성개념으로 보았다. 그러나, 국내연구에서 이영환과 동료들(1999)이 에릭슨의 사회심리발달단계이론의 생산성 개념을 토대로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아버지 역할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그간의 아버지 양육연구에서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사회적 변화에 따라 21세기 아버지 노릇에 대한 두 가지 점을 더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한다.

첫째, 우리사회는 현재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는 미래사회에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연구되어온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자녀가 유아기, 아동기였으나 청년기 자녀 및 성인자녀에 대한 아버지 노릇연구도 진척되어야 한다.

둘째, 미래사회는 가족의 안정성만을 중시하는 과거와는 달리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개인의 가치관이나 기호에 따라 다양한 결혼형태나 가족생활양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부-자녀가족, 분거가족(비동거가족), 동거가족, 입양가족, 공동체가족 등 다양한 가족유형에서 적합한 아버지 노릇에 대한 연구 또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